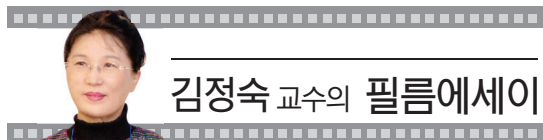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자본과 과학윤리의 딜레마는 극복될 수 있을까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나카이 타츠유키 감독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영화 ‘쥬라기 월드(Jurassic World): 새로운 시작(Rerbirth)’은 쥬라기... 시리즈로는 7번째 영화다.

30년이 넘도록 같은 소재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객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에도름아니다. 영화관은 다른 때보다 빠른 내용이 가득했고 예상대로 부모 손 잡고 관람하러 온 아이들 관객이 많아 보였다. 아이들 관객이 많은 만큼 쥬라기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될 모양이다. 필자의 경우, LA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공룡뼈 모형 보는 정도의 관심이라 영화 ‘쥬라기 공원’(1993) 이후에는 시리즈를 감상하지 않았다. 그러다 손녀가 그림책 독서를 시작한 후로 공룡의 이름, 식성, 성질 등을 줄줄 외는 것을 보고 따라 알게 되었다. 공룡이 그렇게도 좋을까 하면서.

이렇듯 관객의 열광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어린 아이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보호자나 가족이 있어야 자연스럽다. 텔가도 패밀리라 등장은 우연을 가장한 합류로 스토리에 개입된다. 벨라(아역배우 오드리나 미란다)는 아동 관객에게 친숙함을, 테레사(배우 루나 블레이즈)와 자비에르(배우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유니버설 픽처스 제공

데이비드 아이아코노)는 공룡놀이 과정을 거친 틈에 이저에게 친근함을 그리고 아빠 루벤(배우 마누엘 가르시아 룰포)은 아이들 손 잡고 영화관에 온 보호자의 입장을 그린다.

인류의 신약 개발을 위해 조라(배우 스칼렛 요한슨)와 루미스 박사(배우 조나단 베일리) 그리고 거금을 투자하는 제약회사는 용병팀을 꾸린다. 육·해·공을 대표하는 공룡의 살아 있는 DNA 추출을 위해.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구의 허파’라 일컫는 남미 아마존에 가까운 적도 부근의 섬이다. 공룡 유전자 변형 실험을 위해 연구소를 설치했다 폐쇄된 이곳은 종래에는 유전자 괴물을 만들어내고 접근금지 구역이 되어 공룡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쥬라기 시리즈나 시리즈를 거듭하는 스타워즈, 스파이더맨 등 영웅 영화에는 구성의 공식이 있다. 우

여곡절이 동반된 술한 모험 끝에 빌런의 방해로 무림 쓰고 주인공(영웅)은 목적(인류구원)을 달성하고 생존을 한다는.

시리즈가 거듭되어도 이 공식은 변함이 없다. 이제 더 세진 우여곡절의 강도를 덧붙이는 것으로는, 뻔하다 여기는 영리한 관객들을 설득할 수 없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영화의 부제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구성된 신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무리의 등장이다. 루미스 박사가 경탄해 마치 않아 하며 평화로운 채취가 가능한 이 장면은 장대한 음악과 함께 항공샷을 통해 거하게 전달한다. 이 신을 보며 단순히 평화로움을 강요 받는 듯함은 왜일까. 아무래도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부한 연출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관객의 눈을 중심으로 한 샷이었더라면 그 감동이 깊숙이 들어왔을 법도

했다. 자비에르가 처음 보는 정경에 절로 나오는 문구 한 구절을 엮고 텔가도 가족의 눈에 비친 정경의 감동이 객석에 그대로 이입되던 신, 한밤중 자비에르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약육강식의 생태계 구현 등은 도리어 그 놀라움이 생겼다.

문제의 유전자 변형 괴물 공룡은 이 영화의 중심체다. 감독은 이 존재를 부분촬영으로 때론 그림자처럼 화면 밖에 남겨둔다.

이른바 스필버그 감독이 즐겨 썼던 절제된 공포 연출이다. 관객의 눈에도, 배우들의 눈에도, 카메라의 눈에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 미스터리 악령 같은 공포감은 구조 헬리콥터를 씹어버리는 데서 존재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 크기감이 불분명하다. 그 큰 덩치가 어느 신에서는 하수구에 몸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여러 종이 등장한 것이라 해도 납득이 잘 안 된다.

영상이 주는 딜레마 외에 단순 구도의 스토리 행간에 담긴 딜레마가 더 크게 다가온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느 만큼인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도 미국이 개발한 백신을 둘러싸고 기업의 탐욕과 국가적 거래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중잣대를 과연 현명하게 조절하는지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절박하게 주시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유전자 조작이 가져오는 자가당착, ‘신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전작 ‘쥬라기 공원’의 딜레마도 있었다. 자본과 과학윤리의 딜레마가 과연 단순 명쾌하게 ‘인류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는 있을까. 딜레마가 딜레마를 낳는 영화라 할바에 ...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무거운 숙제 남긴 타운홀 미팅



취재수첩

정상아

취재1부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은 상징성 하나로도 지역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대선

당시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냈던 광주·전남이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첫 방문지였고, 이 대통령이 앞서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중심 가치”라고 밝힌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 약속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열린 자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성과는 ‘광주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주재 TF 구성’이 전부였고, 지역이 애타게 요청한 AI 인프라 확충,

국가균형발전 사업, 에너지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

현장에서의 혼선도 논란을 키웠다. 타운홀 일정이 이를 전에서야 공지되면서 지자체의 준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과 미래차산단, 전남도는 재생에너지망 구축, 국립의대 설립 등의 의제를 준비했지만, 현장에서 토론 방식이 자유 질의로 바뀌며 대부분 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강기정 시장은 “행사 하루 전 연락받고 무대에 올랐다”고 털어냈고, 시청 내부 계시판에는 “제대로 된 발언 기회도 없이

끝났다”는 공직자들의 토로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정부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을 정도로 지역의 제안이 구체적 실행 전략 없이 다소 추상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있는 정책 요청을 위해서는 지역이 먼저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타운홀 직후 강기정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를 오가며 광주발전 10대 프로젝트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고,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국가균형특별위 간담회

에서 AI 컴퓨팅센터 구축, AX 실증벨리,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14개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분명 의미 있는 소통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최소한의 준비와 후속 구조가 필요하다. 타운홀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중앙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역도,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군공항 이전 TF처럼 지역 숙원에 물꼬를 튼 사례가 있는 만큼, AI 산업 육성이나 균형발전 공약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